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LOGISTICS REPORT

42주차
글로벌 물류 시황

보고기간 10/12~10/18 · 작성 2026-10-18

경영기획팀 · 임원회의 보고

2026-W42

Executive Summary

주제	결론(신호등)	핵심 근거
종합 시황	🟡	해상·무역 변동성 확대 속 항공 수요 견조세 지속으로 업종별 온도차 뚜렷
해상	🟡	SCFI 종합 보합권 유지 속 유럽 노선 급등, BDI는 급락 혼조세(출처: freight_indices)
항공	🟢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공급 증가율 상회, 적재율 개선(출처: iata-cargo)
물류	🟡	2027년 공급망 재편 외부 요인 부각, 지속가능 물류 실행 확장 난제 지속(출처: DC Velocity)
무역	🔴	미국-러시아 제재 완화 행정명령과 스페인 항만 고액 수수료 등 통상 불확실성 확대(출처: The Moscow Times, Supply Chain Dive)

> ※ 신호등은 리스크 수준(🟢 안정 / 🟡 관망 / 🔴 주의)이며 가격 등락색과 무관.

1. 주간 글로벌 시황 정리

> **결론: 해상·무역 변동성 확대 속 항공 수요 견조세 지속으로 업종별 온도차 뚜렷 (🟡).**

핵심 이벤트

1. 홍해 복귀 선복 6주 만에 두 배 증가(출처: Hellenic Shipping)
2. SCFI 유럽 노선 3.4% 급등 및 BDI 5.6% 급락(출처: freight_indices)
3.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전년 대비 4~9% 증가(출처: iata-cargo, Air Freight News)
4. 미국 대러시아 제재 완화 행정명령 발효 유예(출처: The Moscow Times)
5. 스페인 항만 고액 수수료 및 FMC 수입 제한 추진(출처: Supply Chain Dive)

종합 해설

- **배경:** 해상 운임은 유럽 노선 중심 상승과 벌크 운임 급락이 동시 발생하며 방향성 혼재, 항공은 아시아태평양·북미 중심 수요 확대로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는 견조한 흐름 지속, 무역 부문은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전환과 유럽 항만 비용 리스크가 동시 부각(출처: freight_indices, iata-cargo, The Moscow Times).
- **분석:** 홍해 복귀 선복 급증은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을 시사하며 SCFI 유럽 노선 급등(출처: freight_indices)과 상반되는 신호로 해석, 항공은 중동 노선 급락(-18.2%)을 제외한 전 권역 수요 성장으로 구조적 회복세 뚜렷(출처: iata-cargo), 무역 분야는 관세·제재 정책 변화가 단기 운임·소싱 전략에 직접 영향 미칠 전망(출처: Supply Chain Dive).
- **시사점:** 해상은 홍해 복귀에 따른 공급 변화 모니터링 필요, 항공은 성수기 수요 대응 위한 선복 확보 전략 검토, 무역은 미국-러시아 제재 완화 및 유럽 항만 비용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시급.

2. 해상

> **결론: SCFI 종합 보합권 유지 속 유럽 노선 강세와 벌크 운임 급락 혼재 (🟡).**

INDEX

지수	최신값	기준일	전주 대비
SCFI 종합	3664pt	10/05	▲ +0.1%
SCFI 미주서안	7584pt	10/05	▲ +0.1%
SCFI 미주동안	10524pt	10/05	-0.0%
SCFI 유럽	2274pt	10/05	▲ +3.4%
KCCI 종합	4654pt	10/12	▲ +0.5%
CCFI 종합	1912.38pt	10/05	▼ -0.6%
WCI 종합	4485달러/FEU	10/12	▲ +3.1%
BDI	2991pt	10/05	▼ -5.6%

> 출처: freight_indices(SCFI·KCCI·CCFI·WCI·BDI).

이슈

- **배경:** SCFI 종합 3664pt로 전주 대비 0.1% 상승, 유럽 노선은 3.4% 급등한 반면 BDI는 5.6% 급락하며 선종별 상이한 흐름 전개(출처: freight_indices).
- **분석:** 홍해 복귀 선복이 6주 만에 두 배로 증가하며 선사들의 전략 전환 신호로 해석, 미주행 컨테이너 운임 인상과 수에즈 운하 복귀가 동시 진행되며 대서양 노선 재편 가속화(출처: Hellenic Shipping).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하락 압력으로 작용 가능.
- **시사점:** 유럽 노선 단기 강세 활용한 선복 확보 검토 필요하나, 홍해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로 4분기 운임 조정 가능성 대비 필요.

주요 뉴스

해상

홍해 복귀 선복 6주만에 두 배...선사 전략 대전환 신호

제네타: 선사들, 6주 만에 홍해 복귀 제공 선복 두 배로 확대



컨테이너선사들의 홍해 복귀가 가속화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 예정 선복이 6주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Xeneta 주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 주간 투입 선복은 44만8273TEU로, 선박들이 희망봉 우회를 시작하기 전인 2023년 8월의 93만679TEU 대비 48% 수준까지 회복했다.

에밀리 스타우스볼 Xeneta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 8월 27일 이후 선복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선사들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보안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선사들만 알겠지만, 이는 글로벌 선대에 가용 선복을 풀어 2027년을 앞둔 운임과 서비스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해 복귀 확대는 성수기 이후 물동량이 감소하는 10월이라는 시점과 맞물린다. 스타우스볼은 "홍해 복귀로 풀리는 선복 일부는 현재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혼잡이 흡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화주들은 이번 변화를 2027년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동발 미국 노선에서는 선사들이 공급 조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주 극동~미서안 노선에서 5만8200TEU, 극동~미동안에서 3만5500TEU가 각각 임시 결항 처리됐다. 스타우스볼은 "미국행 현물 운임이 호르무즈 사태 이전 대비 세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국면에서 통상 선사들은 선복을 늘리기 마련인데 결항을 택한 것은 시장 방어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10월 16일 기준 극동~미서안 현물 운임은 FEU당 8296달러, 극동~미동안은 1만1495달러로 전주 대비 각각 0.2%, 0.1%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극동~북유럽은 3568달러로 2.5% 올랐고, 극동~지중해는 4165달러로 3.2% 상승했다. 북유럽~미동안은 2946달러로 0.8%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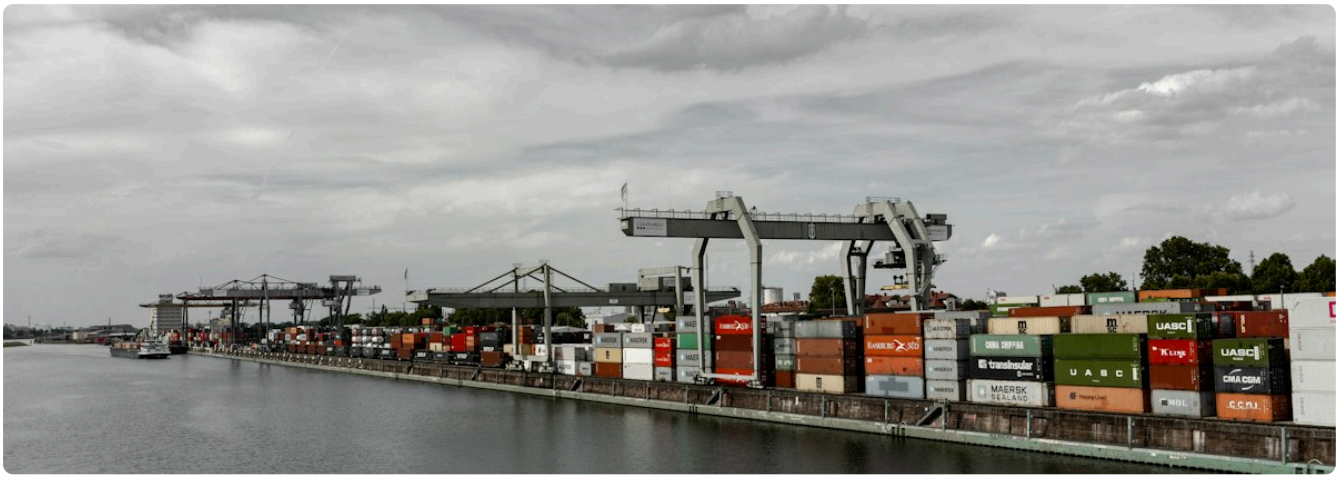
미동안행 운임이 북유럽행의 세 배를 웃도는 격차에 대해 Xeneta는 장기 지속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스타우스볼은 "격차 축소는 미국행 운임 하락이 주도하고 유럽 노선 강세는 제한적일...

출처: Hellenic Shipping

해상

미주행 컨운임 인상·수에즈 복귀…대서양 노선 재편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미주 노선 운임을 조정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수에즈 운하를 통한 홍해 항로 복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CMA CGM은 11월 2일부터 오세아니아와 미주 구간 화물에 대해 TEU당 300달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세아니아발 북미·남미행은 물론 미국 동해안과 캐나다 동해안, 미국 걸프에서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양방향 화물이 대상이다. 건화물과 냉동·냉장 화물, 규격 외 화물, 유료 공(≣)컨테이너에 적용된다.

CMA CGM은 아시아발 남미행 운임도 10월 15일부터 컨테이너당 1,000달러 올렸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대상이며 건화물과 냉동·냉장 화물, 규격 외 화물, 유료 공컨테이너가 포함된다. Maersk는 11월 5일부터 남미 동해안발 미국·캐나다행 건화물에 컨테이너당 1,000달러의 성수기할증료(PSS)를 도입한다.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 모두 동일한 금액이다.

미국 내륙 화물에 붙는 유류할증료도 오른다. Maersk는 미국 유가 상승을 이유로 11월 1일부터 수입·수출 화물의 내륙 구간 유류할증료를 컨테이너당 140달러에서 2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Maersk 해상운송장 아래 선사가 미국 내 문전 트럭 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에 적용된다.

MSC와 Maersk는 미국 걸프·멕시코~남미 동해안 공동 서비스에 브라질 수아페항을 신규 기항지로 추가한다. MSC 야무나 6호가 10월 26일 첫 기항에 나선다. 계절적 수출 수요와 아시아발 남미 동해안 성수기 물동량,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수에즈 운하 복귀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지아항만청(GPA)에 따르면 인도발 화물의 미국 동해안 서배너항 도착 시간이 10~14일 단축됐다. Maersk의 MECL 서비스와 CMA CGM의 인다멕스(INDAMEX) 서비스가 수에즈 운하 경로로 전환했고, MSC도 일부 서비스 복원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케빈 프라이스 조지아항만청 사장은 “여러 주요 선사가 수에즈 노선을 복원하면서 조지아를 세계…

출처: Hellenic Shipping

3. 항공

> **결론: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견조세 지속, 아시아태평양 중심 성장 가속 (🟢).**

INDEX

권역	수요 CTK(YoY)	공급 ACTK(YoY)
전체(글로벌)	+4%	-0.4%
아시아태평양	+10.5%	+5.3%
유럽	+6%	+3%
북미	+5%	+1.2%
중동	-18.2%	-22.9%
남미·카리브	-2.8%	+1.2%
아프리카	+7.7%	-9.4%

> 출처: IATA Air Cargo Market Analysis(iata-cargo, asOf 2026-05). 글로벌 적재율(CLF) 46%(+1.9%p).

이슈

- **배경:** 글로벌 CTK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ACTK는 0.4% 감소하며 수급 개선, 적재율 46%로 1.9%포인트 상승(출처: iata-cargo). 아시아태평양 수요는 10.5% 증가로 전권역 최고치 기록.
- **분석:** 9월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6~9% 증가하며 북미·아시아 발 수요가 견인(출처: Air Freight News). 다만 중동 지역은 수요·공급 모두 두 자릿수 감소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화주들의 장기계약 회피 움직임도 포착되어 단기 운임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출처: Air Freight News).
- **시사점:** 아시아태평양 노선 중심 수요 대응력 강화 필요, 중동 노선 리스크 모니터링 및 장기계약 대신 유연한 공급망 전략 검토 권고.

주요 뉴스

항공

9월 글로벌 항공화물 전년 대비 9%↑…북미·아시아 발 물동량 견인

주간 항공화물 동향 – 2026년 9월 28일~10월 4일



Origin Regions last 2 to 5 weeks	Capacity¹			Chargeable weight¹			Rate¹		
	Last 5 wks	2Wo2W	YoY	Last 5 wks	2Wo2W	YoY	Last 5 wks	2Wo2W	YoY
Africa		+0%	+8%		+2%	+7%		+6%	+31%
Asia Pacific		-1%	+5%		-6%	+5%		+5%	+25%
C. & S. America		+0%	+5%		+3%	+6%		+1%	+7%
Europe		-1%	+1%		+1%	+6%		+2%	+25%
M. East & S. Asia		-1%	+2%		-1%	+7%		+3%	+53%
North America		+0%	+3%		+4%	+8%		+0%	+18%
Worldwide		**-1%**	**+3%**		**-2%**	**+6%**		**+2%**	**+26%**

9월 전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이 8월의 주춤했던 흐름을 딛고 반등했다. 월드에이시디(WorldACD)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물동량은 전월 대비 3%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점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발 화물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동·남아시아(MESA) 발은 9%, 유럽과 아프리카 발은 각각 8% 증가했다. 중남미 발 물동량도 전년 동월 대비 5% 늘어나 전 지역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저가 수입품 면세 혜택 폐지 이후 홍콩과 중국 남부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7월부터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평균 운임도 상승 전환했다. 9월 전 세계 풀마켓 평균 운임은 전월 대비 1% 올랐다. 아프리카 발이 4%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발이 각각 2% 상승했다. 반면 북미 발 운임은 전월 대비 3% 하락했고, MESA 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월 평균 운임은 25% 높은 수준으로, 7월과 8월에 기록한 24% 상승률과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 전년 대비 운임 상승률은 MESA 발이 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프리카 27%, 유럽 24%, 아시아태평양 23%, 북미 18% 순이었다. 중남미 발은 8% 오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9월 말 기준 전 세계 항공화물 캐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 화물기 캐파가 7%, 여객기 벨리 캐파가 2% 각각 늘었다.

3분기 전체로 보면 전 세계 물동량은 직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평균 운임은 미·이란 분쟁 여파로 운임이 급등했던 2분기보다 7%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4%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발 미국행 물동량은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7% 늘며 강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중국발 유럽행 운임은 9월 킬로그램당 4.5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 올랐지만, 6월의 30%…

출처: Air Freight News

항공

루프트한자 카고, 뭄바이 신공항 전환…아시아 화물 네트워크 확대

루프트한자 카고, 2026/2027 동계 스케줄 발표 및 뭄바이 연결성 강화



루프트한자 카고가 2026/2027 동계 스케줄을 발표하며 전 세계 40개 목적지에 88개 화물기 노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물기 순환편을 확대해 이 지역 17개 목적지에 주당 최대 46회의 화물기 순환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 노선으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타이베이로 향하는 기존 순환편에 싱가포르가 추가됐다. 이 신규 아시아 역내 노선을 통해 루프트한자 카고는 아시아 내 네트워크 옵션과 메인덱 화물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호치민과 상하이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지는 대서양 횡단 노선은 주 7일 중 2일 운항이 하계 스케줄부터 유지된다.

이 밖에 프랑크푸르트발 타이베이행과 청두행 추가 항공편도 각각 주 7일 중 3일 빈도로 계속 운항한다. 알마티와 프랑크푸르트 간 화물 운송도 재개된다.

뭄바이 비즈니스 지역에서는 10월 12일부터 화물기 운항을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에서 신규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으로 전환한다. 이는 공항 확장을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주된 이유로, 이를 통해 역내 주요 산업 및 제조 허브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지난해 첫 국내선 운항을 시작했다.

아울러 벵갈루루가 취리히를 오가는 SWISS 월드카고의 노선 네트워크에 추가돼 인도 남부 화주들에게 유럽 허브 옵션을 하나 더 제공하게 됐다. 미주 지역에서는 댈러스가 주 4회, 휴스턴이 주 3회, 뉴욕 JFK가 주 5회로 각각 증편된다. 유럽 내에서는 B777F 기종으로 주당 최대 3회의 순환편을 운영하며, 프랑크푸르트발 라르나카·이스탄불·스타방에르 노선이 정규 편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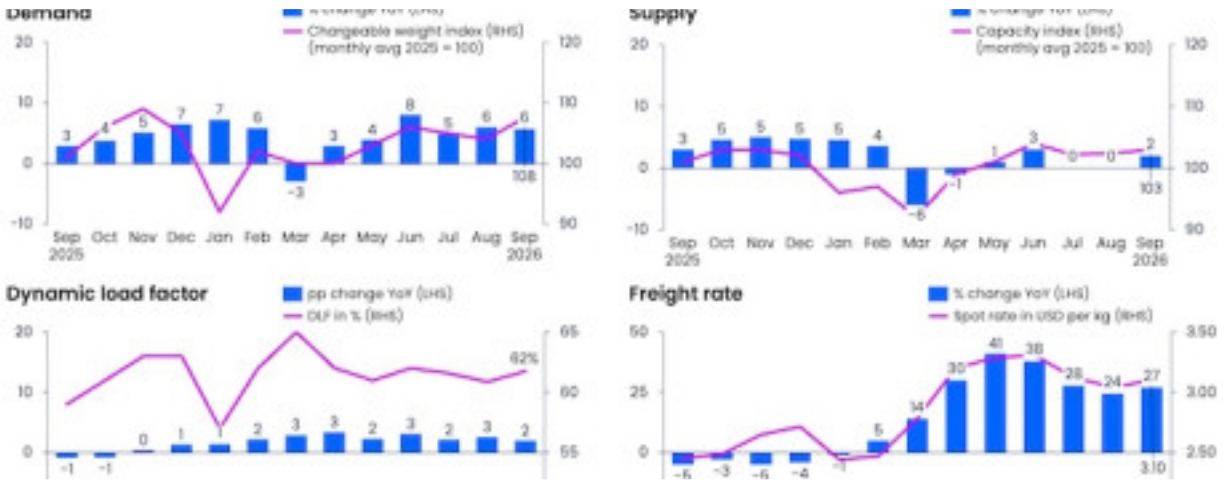
루프트한자 카고의 아쉬윈 바트 CEO는 "이번 스케줄로 유럽을 오가는 네트워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준을 유지한다"며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나비 뭄바이 연결을 통해 고객이 고성능 인프라와 안정적인 화물 공간을 계속…

출처: Air Freight News

항공

9월 글로벌 항공화물 6%↑...화주들 장기계약 회피

9월 항공화물 수요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가운데, 화주들이 장기 계약 대신 변동 운임 메커니즘을 선호하며 유연한 요금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9월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화주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반영해 1년 고정 운임 계약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을 조정하는 유연한 계약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Xeneta가 최근 발표한 월간 시장 분석에서 확인됐다.

Xeneta에 따르면 9월 전 세계 항공화물 스팟 운임은 킬로그램당 평균 3.1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2% 올랐는데, 3분기 말 전형적인 계절적 상승세와 중동 긴장 지속에 따른 제트유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브렌트유는 9월 초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돌면서 Xeneta의 동적 소석률은 62%를 기록했다. 항공 화물 운송 능력은 7월과 8월 정체된 뒤 9월 전년 대비 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물동량은 6% 증가해 소석률이 2%포인트 끌어올려졌다.

화주들의 계약 행태 변화가 두드러진다. 2026년 3분기부터 시작되는 신규 계약 가운데 3개월 이하 단기 계약 비중은 6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년 계약 비중은 40%에서 25%로 줄었고, 1년을 넘는 장기 계약은 3%에 불과했다. Xeneta의 항공화물 최고책임자 나일 반데 우브는 "현재 상황에서 1년 고정 운임 계약은 맞지 않는다"며 "화주들은 포워더와의 계약에 시장 상황에 연동되는 조정 장치를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노선별로는 9월 대부분 구간에서 운임이 전월 대비 반등했다. 동북아시아발 유럽행은 5% 오른 킬로그램당 4.74달러, 동북아시아발 북미행은 5% 상승한 6.03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발 서유럽행 운임은 8월과 7월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전월 대비 10% 오른 4.26달러로 집계됐다. 유럽발 북미행도 4% 올랐다. 반면 북미발 동남아시아행과 유럽발 동남아시아행은 각각 1%, 2% 하락했다.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노선별 희비도 엇갈렸다. 유럽연합의 건당 3유로 관세 부과 여파로 중국발 유럽행 저가 전자상거래...

출처: Air Freight News

4. 물류 사업 전반

> **결론: 2027년 공급망 재편 전망 속 지속가능성·신기술 실행 격차 지속 (🟡).**

이슈

- **배경:** 2027년 공급망 재편을 이끌 외부 요인으로 운임·소싱 전략 변화가 지목되며, 지속가능 물류 해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실행 확장은 여전히 난제로 평가(출처: DC Velocity).
- **분석:** 아칸소대와 D-Wave의 양자컴퓨팅 공급망 적용 연구 착수는 중장기 기술 혁신 가능성을 시사하나 상용화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출처: DC Velocity). 지속가능성 목표와 실행 간 괴리는 업계 전반의 공통 과제로 재확인.
- **시사점:** 중장기 공급망 재편 대비 운임·소싱 전략 유연성 확보 필요, 지속가능 물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 권고.

주요 뉴스

물류

양자컴퓨팅 공급망 적용 연구 착수...아칸소대·D-Wave 협력

아칸소대학교가 양자 컴퓨팅을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수요 예측 등 복잡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양자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D-Wave Quantum과 미국 아칸소대학교가 공급망 관리 분야에 양자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6일 조지아주 내슈빌에서 열린 공급망관리전문가협의회(CSCMP) EDGE 콘퍼런스에서 발표됐으며, 샘 월턴 경영대학 산하 공급망관리연구센터(SMRC) 연구 과제로 편성됐다.

양사는 운송 경로 설정과 물류 네트워크 설계, 재고·자원 할당, 일정 계획, 공급망 혼란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등 공급망 최적화 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응용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D-Wave는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번 협력에서 양자 최적화 기술을 공급망 사용 사례에 접목하는 역할을 맡는다.

D-Wave의 머레이 돔 양자기술 에반젤리즘 부사장은 "공급망은 매우 역동적이며 의사결정이 효율성과 비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양자컴퓨팅 기술이 기존 고전적 접근법을 대체할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자컴퓨팅은 경로 설정과 일정 계획, 자원 배분 등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신흥 컴퓨팅 분야다. 공급망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혼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양측은 커리큘럼 개발과 사례 연구, 실무 프레임워크 구축, 학생 학습 기회 제공 등 교육 부문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월턴 경영대학의 브라이언 푸게이트 연구·대학원 부학장은 "월턴 칼리지는 공급망 관리와 회복탄력성을 발전시키는 최신 방법론과 기술을 탐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양자컴퓨팅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최적화 문제를 양자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출처: DC Velocity

물류

지속가능 물류 해법 공감하지만 실행 확장은 난제

물류업계, 지속가능성 해법엔 공감하지만 확장에 어려움



물류업계가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실제 확장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네 로지스틱스 대학과 쿠네 기후 센터가 처음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 물류 설문조사에서 물류기업과 화주들은 경로 최적화, 차량 전동화, 저탄소 연료 사용 등 21개 해법의 효과성을 거의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 여부는 해법에 대한 이견보다 실행 가능성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4개국 물류 전문가 1,0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속가능성 해법과 역량, 기후 위험 적응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연구진은 세 영역 모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넓지만, 개별 기업이나 이들이 의존하는 시스템 차원의 실행 여력이 진전을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인프라가 향후 10년간 병목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저탄소 차량과 연료 확산 속도가 이들을 뒷받침할 충전 네트워크, 터미널, 철도 인프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에게 효과적이지만 도입이 드문 저탄소 연료와 전동화, 복합운송에 초점을 맞춘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다.

기후 적응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83%가 물류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지만, 현재 대응이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그쳤다. 보고서는 기업 관리자에게 규제가 의무화하기 전에 자본 집약적 해법을 선제 도입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객 기대에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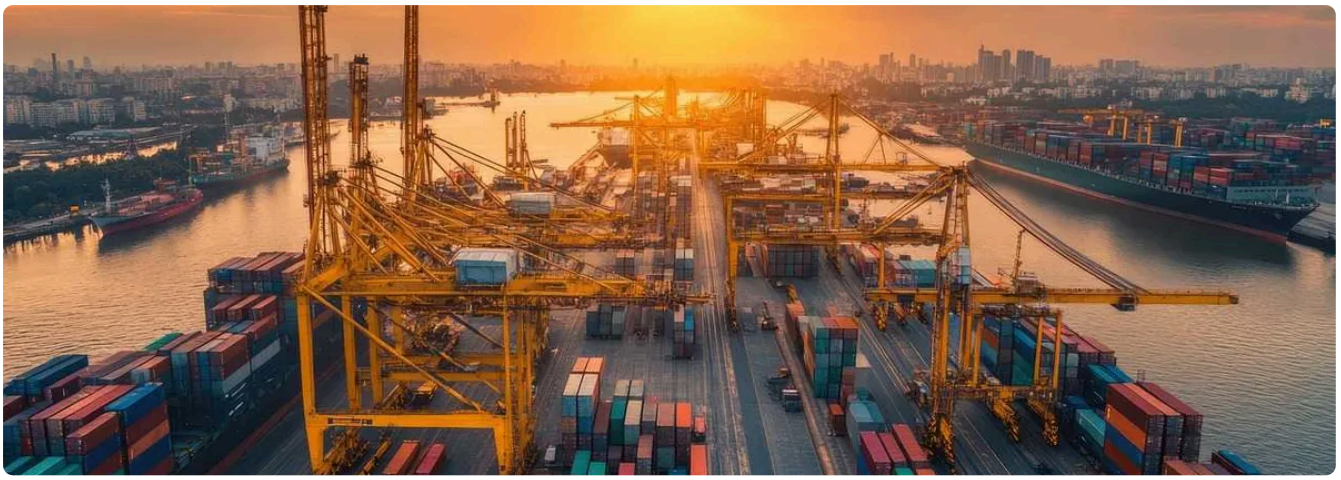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하되 유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초기 진입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엔 지속가능 운송 10년 이니셔티브에 맞춰 업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DC Velocity

물류

2027년 공급망 재편 외부 요인…운임·소싱 전략 변화 불가피

2027년 공급망 재편할 외부 요인들



2027년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핵심 변수로 운송 규제와 법적 책임, 지정학적 긴장 등 산업 외부 요인이 지목됐다. 물류기업 C.H. Robinson이 최근 발표한 '2027 화물시장 전망 보고서'는 이들 요인이 운영비 상승과 글로벌 소싱·조달 전략 변화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7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5대 영역으로 운송 규제, 법적·책임 변화, 운송 능력 성장, 기상 이변, 지정학적 긴장을 제시했다. C.H. Robinson은 "2027년을 앞둔 글로벌 화주들은 상품 이동에 대한 오랜 가정이 시험대에 오르는 세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공급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바뀌었고, 상품 생산지뿐 아니라 국경·해상·항공·철도·도로를 통과하는 방식까지 달라졌다"고 밝혔다.

운송 규제 부문에서는 단속 강화가 가용 운송 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 준수 요건으로 기존 운송사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신규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적·책임 측면에서는 운송사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보험·컴플라이언스·책임 비용 상승이 중소 운송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꼽혔다.

운송 능력 성장은 양면적 신호로 해석됐다. 글로벌 운송 능력 자체는 확대될 수 있지만, 운송사들의 네트워크 운용 방식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특정 노선에서는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 이변 부문은 강한 엘니뇨와 저수위 현상이 항만과 해운 통로, 내륙 운송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해당 지역을 넘어선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도 화물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무역 정책과 분쟁, 투자 이동이 화물 경로를 재편하고 운송 비용과 운송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H. Robinson은 "오늘날 가장 큰 해운 과제 중 일부는 화물 시장 바깥의 힘, 즉 주요 통로의 분쟁과 변화하는 무역 관계, 기후 관련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동향을 운송…

출처: DC Velocity

5. 무역

> **결론: 미국-러시아 통상정책 전환과 유럽 항만 비용 리스크로 불확실성 확대 (🔴).**

이슈

-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완화 및 관세 면제 행정명령이 발효 직전 유예되며 정책 불확실성 지속, 스페인 항만은 회당 20만달러 수수료 부과 움직임과 함께 미국 FMC의 수입 제한 추진도 병행(출처: The Moscow Times, Supply Chain Dive).
- **분석:** 러시아 디젤 거래 재개 가능성은 러시아 정유사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나 서방 제재 체계의 근본적 전환 신호로 해석될 소지(출처: The Moscow Times). 스페인 항만 고액 수수료와 미국의 맞대응 성격 수입 제한 추진은 유럽-미국 간 해상 물류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출처: Supply Chain Dive).
- **시사점:** 대러시아 제재 완화 관련 정책 변화 지속 모니터링 필요, 유럽 항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체 노선 및 비용 전가 전략 사전 검토 권고.

주요 뉴스

무역

트럼프, 러시아 제재·관세 면제 행정명령…발효 직전 유예

트럼프, 신규 제재 법안에서 러시아 면제 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에 대한 신규 제재와 관세 부과를 발효 수일 앞두고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The Moscow Times가 보도했다. 백악관이 지난 금요일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면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Lindsey O. Graham 제재법에 근거한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30일 이내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스크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키이우에 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시사해 왔다. 분석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수주 앞둔 시점에서 신규 제재가 유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면제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번 면제 발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제출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주요 구매국으로서 해당 제재 법안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베이징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장기 관할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도는 워싱턴에 신규 관세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제 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투자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번 면제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법안이 미·러 간 모든 경제 협력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산 디젤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에 합의한 데 이어…

출처: The Moscow Times

무역

트럼프발 러시아 디젤 거래…러 정유사 수혜 전망

분석가들, 트럼프 디젤 거래로 러시아 기업 최대 수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한 디젤 공급 거래가 미국 소비자보다 러시아 석유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기업들은 수출 제한 완화로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약속된 공급 물량이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디젤 30만 톤을 즉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이어 11월에 50만 톤, 이후 매월 100만 톤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디젤 가격은 갤런당 6.179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급등한 상태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디젤 수출은 올해 1~9월 누적 1억 7천2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미국은 자국 소비량보다 약 25% 많은 디젤을 생산하는 순수출국이지만, 국내 연료 가격은 글로벌 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러시아산 디젤이 세계 시장에 추가로 풀리면 수급 격차가 좁혀져 간접적으로 미국 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 정유 시설이 이미 최대 가동률에 근접해 있어 해외 공급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꼽혔다.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디젤 순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전 디젤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두 배를 웃돌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9월 디젤 선적량은 약 42만 7천 톤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강화되기 전 월 약 300만 톤에서 급감했다. 다만 이 수치는 러시아가 내수 보호를 위해 수출을 허용한 중앙아시아 등 일부 국가행만 집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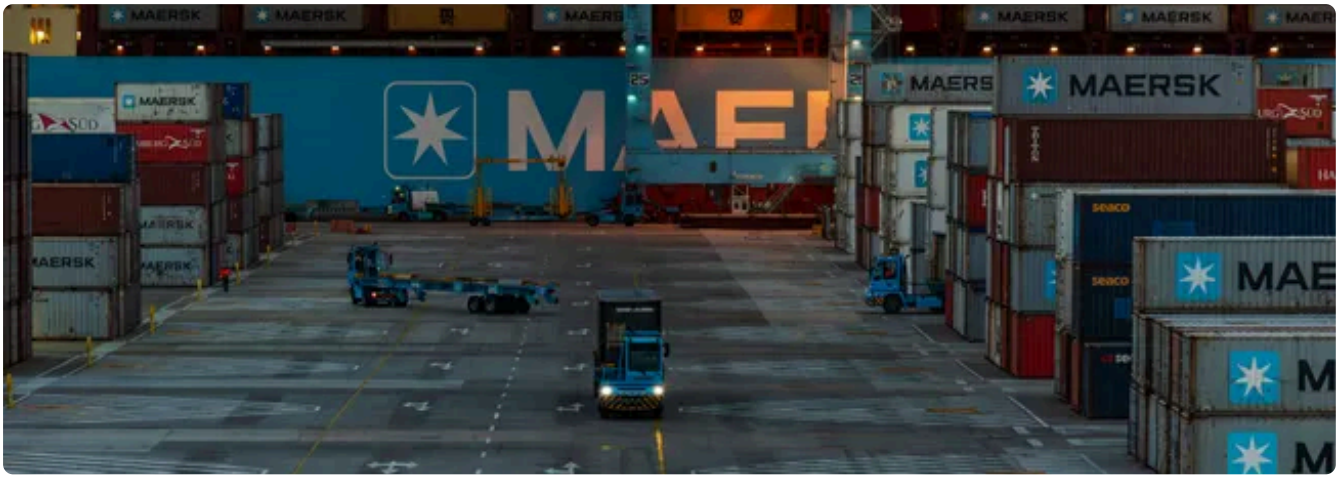
독일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분석가는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러시아가 7~9월 사이 광범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소 160만 톤의 디젤을 해상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이 잉여 물량을 보관할 저장 용량 부족으로 이 같은 회색 수출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요청한 11월 물량 50만 톤은 기존 회색…

출처: The Moscow Times

무역

스페인 선박 회당 수수료 20만달러...FMC, 수입 제한도 추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스페인 국적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및 수입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스페인의 항만 접근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선박 크기·화물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스페인산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MC는 지난 2024년 개시한 조사에서 스페인이 미국 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입항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MC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심리 기록에 따르면, 수입 제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은 향수·화장품, 유지류, 세라믹, 석재 제품, 설탕·과자류 등이다. FMC는 이들 품목 전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만 겨냥한 제한, 또는 조합된 목록에 대한 제한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FMC는 심리 기록을 통해 "제안된 수입 제한은 스페인산 제품의 수입만 막는 것으로, 제한된 물량은 대부분 유사한 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국 해사안보프로그램(MSP)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Maersk 선박 2척이 스페인 항만 접근을 거부당한 증거도 확인됐다.

FMC는 "국방과 미국의 내외 상거래에 필요한 MSP 선박의 배제는 국가 비상시 해군 및 군사 보조 선박으로 투입돼야 할 때 필수 해운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측은 이러한 입항 거부의 근거로 유럽연합(EU)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스페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의 국방비 부족을 비판하며 교역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FMC는 수수료와 수입 제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14일까지이며, 스페인 측에는 이번 건과 관련한 청문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FMC의 최종 결정이 미주-지중해 항로의 선복 운영과 화주들의 물류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